TV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6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위험한 여자〉	05 KBC 뉴스지금 3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 연속극 〈태양의 신부〉
30 KBS 뉴스	00 TV 소설 〈복희누나〉	9	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TV동화 행복한 세상	00 여유만만 50 지구촌 뉴스	10		30 SBS 뉴스
00 여성공감 55 바른말 고운말	10 KBS스포츠 타임 20 세상의 모든 다큐 과거에서 온 아이, 부슈라	11	00 찾아라! 맛있는 TV 스페셜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뉴스 12	10 인간극장 스페셜	12	00 MBC 뉴스 15 다문화 희망 프로젝트 〈우리는 한국인〉	00 SBS 12 뉴스 30 다큐로 만난는 세계(재)
00 KBS 걸작선 〈사랑을 믿어요〉(재)		1	05 경제매거진 M(재) 50 스포츠특선 〈코리아 스피드 페스티벌〉(재)	30 도전! 슈퍼대디
00 KBS 뉴스 10 현장르포 동행(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퀴즈쇼 사총사(재)	2	40 공감 특별한 세상 스페셜 55 왕종근의 아름다운 초대 스페셜	00 SBS 뉴스 10 네트워크현장 고향이 보인다
00 한국재발견(재) 전남완도	00 KBS 뉴스타임 05 쥬로링 동물탐정 35 미키마우스 클럽하우스	3	50 MBC뉴스	10 세계 고산지대를 가다
10 KBS 네트워크 특선 The 비빔밥 -전주-	00 TV 유치원 30 어리 이야기	4	00 뽀뽀뽀 아이조아 30 마법천자문	00 안녕 자두야 30 내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남도지오그래피	00 사랑의 가족	5	00 연예플러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0 KBC 저녁뉴스 20 촌티콤 웰컴 투 가오리
00 6시 내고향 50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 정보통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7 30 러브 인 아시아	45 스타 인생극장 〈소녀시대〉	7	45 일일시트콤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10 시사터치 따따부따 20 일일드라마 〈내딸 꽃님이〉
25 일일연속극 〈당신뿐이야〉	20 세계는 지금 55 1대 100	8	15 일일연속극 〈오늘만 같아라〉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기자가 만난 세상 〈현장 21〉
00 KBS 뉴스 9	55 월화드라마 〈브레인〉	9	55 MBC월화특별기획 〈계백〉(최종)	55 월화드라마 〈천일의 약속〉
00 KBS 글로벌 진단 위기의 시대 제3편 〈에너지 패권전쟁〉 50 아름다운 사람들		10		
00 KBS 뉴스 라인 30 KBS 특별기획 60년의 기적 -제2편-	05 김승우의 승승장구	11	15 PD수첩	15 강심장
25 KBS 뉴스 35 KBS 네트워크 기획 백년의 고독	15 스포츠하이라이트 35 TV특강	12	10 MBC 뉴스 24 30 MBC 프라임 ①:25 세계 평화기원 카타르 국제탁구 남녀 복식 결승	40 나이트 라인

EBS

06:00 선생님 선생님 우리 선생님
06:30 신나는 인생 5678
07:00 오스카의 오아시스
07:10 정글북
07:35 꼬마기관차 토마스와 친구들
07:45 뽀롱뽀롱 뽀로로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08:35 숲 속 친구 파파룰라
08:50 빠삐에 친구
09:00 방귀대장 뿡뿡이
09:10 코코몽 2
09:25 꼬마거북 프랭클린
09:40 팅가팅가 이야기
10:00 최고의 요리비결 〈박경신의 김장김치〉
10:30 60분-부모
11:30 세계의 교육현장
12:00 EBS 정오 뉴스
12:10 TV 평생대학-역사이야기
13:00 세계테마기행 〈검은대륙 남아공 2부〉
13:40 신나는 인생 5678(재)
14:10 EBS 다큐프라임(재)
15:00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중급)
15:30 꾸러기 상상여행
15:55 딩동댕 유치원(재)
16:15 장난감 나라의 노디
16:30 뽀롱뽀롱 뽀로로(재)
16:45 방귀대장 뿡뿡이(재)
16:55 코코몽 2(재)
17:15 숲 속 친구 파파룰라(재)
17:30 캐니멀
17:45 폴리와 함께하는 교통안전
18:0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1
18:05 우당탕탕 아이쿠
18:1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2
18:20 과학이 톡톡!
18:30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3
18:35 미술 탐험대
18:45 생방송 톡! 톡! 보니 하니4
18:50 와글와글 친구들
19:00 오스카의 오아시스
19:10 정글북
19:35 트랜스포머 프라임
20:00 미션퀴즈
20:30 EBS 뉴스
20:45 지식채널ⓔ
20:50 세계테마기행 〈풍요의 땅 레바논 2부〉
21:30 한국기행 〈정읍 2부〉
21:50 EBS 다큐 프라임-교육기획
22:40 EBS 기획특강
23:20 하나뿐인 지구
00:00 지식채널e
00:05 EBS 스페이스-공감

EBS플러스1

04:10 EBS 포스 〈김경한의 적분과 통계〉
05:00 EBS기본과 특별한(재) 〈곽정원의 수학 상〉
05:50 〃 〈조연의 한국사〉
06:40 EBS 포스(재) 〈이하영의 수학 Ⅰ〉
07:30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08:20 EBS 탐스런 〈김지은의 경제지리〉
09:10 〃 〈김종국의 경제〉
10:00 공부의 왕도
10:30 EBS 초대석
11:20 EBS 내신 6강 〈정승제의 수학(상)〉
12:10 EBS포스(재) 〈이은주의 수학Ⅱ〉
13:00 EBS 기본과 특별한(재) 〈박봄의 사회(일반)〉
14:00 EBS포스(재) 〈최수일의 기하와 벡터〉
15:00 EBS 탐스런 〈여한종의 생물Ⅰ〉
16:00 〃 〈항종철의 생물Ⅱ〉
17:00 EBS 기본과 특별한 (재) 〈곽정원의 수학(상)〉
18:00 〃 〈조연의 한국사〉
19:00 EBS 탐스런(재) 〈김지은의 경제지리〉
20:00 2012학년도 논구술 특집

EBS플러스2

08:00 9급 공무원 시험 대비 강좌
08:30 초등수학-매스 트레이닝
09:00 EBS TV 중3 〈국어〉
09:40 〃 〈수학3-2〉
10:2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11:00 EBS TV 중1 〈영어〉
11:50 EBS TV 중2 〈영어〉
12:30 〃 〈수학2-2〉
13:10 EBS 중2 퍼펙트 체크업 〈역사(상)-2〉
13:50 중학영어독해 level 1
14:30 초등 6학년 영어
14:50 EBS클립뱅크
15:10 과학이 톡톡!
15:20 초등 내공남남 〈수학 3-2〉
15:50 〃 〈수학 4-2〉
16:20 〃 〈수학 5-2〉
16:50 〃 〈수학 6-2〉
17:20 초등 수학-매스 트레이닝
17:50 EBS TV 중1 〈비문학1〉
18:30 〃 〈영어〉
19:10 EBS 중1 퍼펙트 체크업 〈사회〉
19:50 EBS TV 중2 〈영어〉
20:30 〃 〈수학 2-2〉
21:10 EBS TV 중3 〈국어〉
21:50 〃 〈수학 3-2〉
22:30 EBS 중3 퍼펙트 체크업 〈수학 3-2〉

'최동원- 선동열' 두 전설의 승부

조승우 - 양동근 내달 개봉 '퍼펙트 게임'서 완벽 재현(?)

영화 '퍼펙트 게임'에서 선동열과 최동원 역을 맡은 배우 양동근〈왼쪽〉과 조승우.

"고(故) 최동원 감독의 선수 시절 투구 자세가 정말 어려웠지만, 따라 해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최동원 감독과 선동열 감독의 선수 시절 명승부를 그린 영화 '퍼펙트 게임'(12월 개봉예정)에서 최동원 역을 맡은 배우 조승우는 21일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조승우는 "(영화)감독과 투수코치가 투구폼을 따라 하기 힘드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특징만 살리고 변형하자고 했는데, 내가 고집을 부려서 따라 해보겠다고 했다"며 "똑같이 재현하진 못했지만, 촬영 시작 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노트북에 최 감독의 투구 영상을 올려놓고 계속 슬로우(느리게)로 봤다"고 전했다.

그는 최동원 감독에 대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많은 후배가 기억하는 모습은 항상 인간적이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들었다"며 "사진에서도 많은 후배와 껴안거나 웃고 어깨동무하는 모습이 많은데, 프로 선수로서는 냉정하지만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인간적인 면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어릴 때 꿈이 야구선수였는데, 그 꿈을 간접적으로 이루게 해준 고 최동원 감독과 (박희곤) 감독께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선동열 감독을 연기한 양동근은 "(선 감독처럼 보이려고) 살을 많이 찌웠다"며 "투구폼이 어려웠는데 일단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촬영 중간에 시간이 남을 때 계속 연습을 해야 했다. 촬영 6개월 하고 끝날 때쯤 되니까 조금 비슷해졌다"고 말했다. 양동근은 이전까지 야구를 전혀 몰랐으며 이번에 처음 야구공을 잡아봤다고 했다.

이 영화는 두 선수가 해태타이거즈와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투수로 맞대결을 벌였던 세 경기 중 마지막 경기인 1987년 5월 16일의 경기 내용을 담고 있다. 1승 1패의 전적으로 세 번째 경기에 영호남 야구팬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됐는데, 이 경기는 연장전까지 15회 4시간56분간 이어져 무승부로 끝난다.

메가폰을 잡은 박희곤 감독은 "두 사람이 인생을 걸었던 얘기여서 영화화하는 데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싶다"며 "세상 사람들이 가까웠던 두 사람을 검투장에 가둬놓고 누군가 한 명만 살아남길 기다린 건 아닌가 생각했다. (상황이) 잔인한 건데, 그럼에도 두 사람이 순수하게 서로 바라봤던 게 이 영화에서 담고 싶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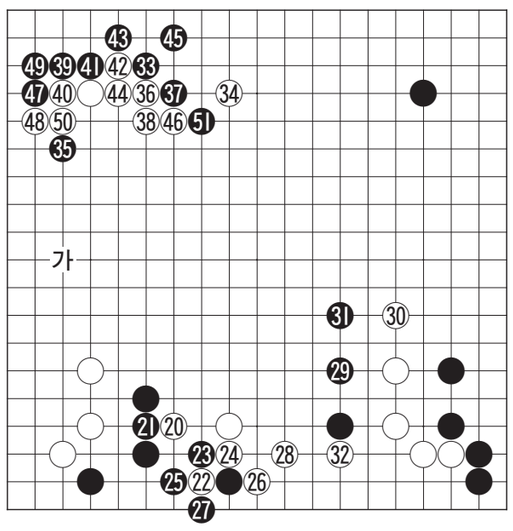
두 배우 외에 최정원이 두 선수의 경쟁심을 부추기는 신문사 기자로, TV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활약 중인 조진웅이 롯데자이언츠의 4번 타자 김용철 역을 맡았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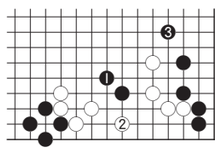
제20회 光日盃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전승자들의 대결

준결승 1국 2보(20~51)

黑 최영호 5단 (포스코) 白 김광식 5단 ((주) 송림)




〈참고도〉

각 직장의 강자들이 몰려있는 주장전 격인 A조에서 4전 전승을 기록하며 손쉽게 개인전 준결승에 진출한 김광식 5단은 왕년에 호남최강자전에서 우승한 바 있는 실력자로 일찍부터 개인전의 강력한 우승후보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동안에는 운이 따르지 않았는지 번번히 고배를 마셨는데 이번에는 순조롭게 준결승전에 진출하여 우승컵을 노리고 있는 중이다.

포스코의 최영호 5단은 이번에 처음 출전하고 있다. 강자들이 즐비한 포스코에서는 대표로 출전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실력자로 대우받는다. 역시나 단체전에서 4연승으로 준결에 진출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백 20부터 28까지는 이런 경우의 상용수 단인데 다음 흑 29로 뛰어나간 수는 성급했다.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을 선수하고 3으로 우변을 건설하는 것이 가벼웠다. 백 30을 당해 흑이 엷어지고 있다.

좌상귀의 정석에서 흑 47로 젖혀이은 수로는 '가'에 벌리고 싶은 곳. 흑 51은 기세의 젖힘이기는 한데.

오규철 9단
〈본보 바둑해설위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2일(음 10월 27일 辛巳)

子 36년생 불행에 굴복하지 말고 도전할 일이다. 48년생 건강의 자생력을 길러라. 60년생 성가시던 존재가 없어져서 속이 후련해진다. 72년생 길사와 연결되는 기운이 힘차게 도래한다. 84년생 이해 관계에 얽혀서 사람이 모여들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63, 38

丑 37년생 상부상조하면 득이 많겠으나 세심히 살필 필요는 있다. 49년생 해결할 능력자가 나서야만 한다. 61년생 파격적인 기분 전환이 필요하다. 73년생 겸양함은 자기 완성의 토대이니라. 85년생 장래가 유망하다는 평을 들을 수 있다.행운의 숫자 : 24, 77

寅 38년생 문서가 들어와서 행복 지수를 드높인다. 50년생 동행인의 박학다식으로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62년생 감정을 뿌리치지 못하면 언쟁을 일으킨다. 74년생 무리한 언행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85, 59

卯 39년생 융통성을 폭 넓게 발휘해야겠다. 51년생 동쪽에 있는 것보다 서쪽에 있는 것에 더 신경 써라. 63년생 이면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을 수다. 75년생 불륜에 집착하는 심리를 파고드는 신종 범죄에 유의하자. 행운의 숫자 : 10, 18

辰 40년생 장래에 대하여 희망을 여는 소식이 오겠다. 52년생 주변에 협조자가 생기나 선길후흉이다. 64년생 궁리를 잘 해야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겠다. 76년생 이해 관계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대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9, 30

巳 41년생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면 외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53년생 앞일을 알려거든 먼저 지나 간 일을 잘 살펴보라. 65년생 충심으로 헌신하라. 77년생 수하인의 깊은 뜻을 수렴할 줄 아는 아량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3, 64

午 42년생 여건이란 자연히 조성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니라. 54년생 좋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66년생 방해꾼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겠다. 78년생 발설로 인해 난처해 질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92, 34

未 43년생 남의 일로 인해 억울하게 피해를 볼 수 있다. 55년생 일방적인 처리로 인해 갈등이 보인다. 67년생 크게 액땜할 일이 있으니 대범해야 한다. 79년생 복이 흉으로 변할 수 있으므로 절대 방심하지 말라. 행운의 숫자 : 06, 81

申 44년생 실수가 있었다면 솔직히 인정하라. 56년생 새로운 일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68년생 미사여구로 말만 잘하는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80년생 공공 장소에서의 과도한 애정 어필은 자제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95, 25

酉 45년생 겉모습만으로 속단하다가는 오판하게 된다. 57년생 생소한 길목에서의 결정으로 혼란이 온다. 69년생 남의 흉을 보고 있다가 장본인이 등장하여 당황할 수 있다. 81년생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라. 행운의 숫자 : 55, 69

戌 46년생 신용은 평상시에 잘 닦아 놔야 한다. 58년생 음주 후에는 외딴 골목길의 보행을 피하라. 70년생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이 가장 건전하다. 82년생 이성 교제를 주선하려는 이가 기특하기만 하다. 행운의 숫자 : 32, 98

亥 47년생 불편한 자리라면 끝까지 앉아 있지 말라. 59년생 용호상박 중의 상처를 주의하라. 71년생 용기 있는 말 한마디가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데 일익이 될 것이다. 83년생 검증되지 않은 말의 화살이 날아온다. 행운의 숫자 : 50, 44

www.cafe.daum.net/sajoo114 ☎010-9790-8237

우리말 나들이

담임을 발음할 때

[다님]으로 발음하나요?
아니면 [다밈]으로 발음하나요?

[다밈]으로 발음하는 것이 맞습니다. '담임(擔任)'의 발음을 대체로 [다님]으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兼任'의 발음을 [겨님]으로 하지 않고 [겨밈]으로 하는 것과 같이 '담임'도 [다님]이 아니라 [다밈]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전남언어문화교육 연구회〉

굿모닝 잉글리쉬

You look stressed out.
자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

A : What's the matter, OhSee?
You look stressed out.
B : I'm under a lot of pressure at work.
A : You need a long vacation.
B : I know, but I really don't have a time.

A : 무슨 일인가, 오씨?
자네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보여.
B : 저는 직장에서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A : 장기 휴가가 필요하군요.
B : 그래요, 하지만 저는 정말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 무슨 일인가?
= What's wrong (with you)?
* What happened (to you)?
at work = 직장에서, 근무 중인

〈동아 외국어학원〉
www.donga.tv ☎ 222-6253

니하오 쭝구워

烟搭桥, 酒开路
뇌물로 건네는 담배와 술

담배(烟)로 다리를 놓고(搭桥), 술(酒)로 길을 튼다(开路)-yān dā qiáo, jiǔ kāi lù. 중국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담배를 많이 권합니다. 우리도 2~30년 전만해도 피우든 안 피우든 그냥 담배를 권했으며, 계약관계의 乙의 입장이라면 원래 못 피워도 받아 피우는 경우가 있었고, 안 피운 사람도 접대용이라며 한 갑씩 가지고 다니기도 했지요.

당시에는 '술, 담배는 할 줄 알아야 사람 사귀지'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였으나 중국의 烟搭桥, 酒开路는 모두 비정상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환심을 사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이지요.

〈리틀차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

오하요우 니혼고

私も映画に行きたいんですが。
나도 영화 보러 가고 싶습니다만

A : 山田さん、勉強の後で、映画を見に行きませんか。
B : すみません。私も映画に行きたいんですが。
A : せっかくですから、一緒に行きましょうよ。
B : 学校の後で、日本語の学院で勉強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A : 야마다씨, 공부 뒤에 함께 영화를 보러가지 않겠습니까.
B : 미안합니다. 나도 영화 보러 가고 싶습니다만.
A : 모처럼 이니까 함께 가요.
B : 학교가 끝난 뒤 일본어학원에서 공부해야 합니다.

[문법정리]
⊙ 명사 + の あとで (~뒤에)
▸ 夕ごはんのあとで、勉強します。
= 저녁식사 뒤에 공부하겠습니다.
▸ 仕事のあとで、友だちと飲みに行きます。
= 일이 끝난 다음 친구와 마시러 가겠습니다.

〈아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http://www.kjasuka.co.kr ☎ 232-1503